

碩士學位論文

初等學校 敬老·孝親 教育의 活性化 方案 研究

- 道德科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邦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梁 憲 宗

2000年 8月

初等學校 敬老・孝親 教育의 活性化 方案 研究

- 道德科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邦 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梁憲宗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초등학교 경로 효친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도덕과를 중심으로

양 헌 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방안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인간성을 회복하는 규범인 경로 효친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경로 효친은 부모와 사회의 웃어른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의 경로 효친 교육은 6제재와 8개의 제재로 되어 있다. 교수-학습 방법을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관련된 규범 찾아보기,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 도덕적 판단이 연습, 실천동기의 부여와 같은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법으로는 토의학습과 역할놀이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인 생활예절의 습득과 가치관의 형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경로 효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도덕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한다. 우선 내용면에서 학습자와 실현성 그리고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내용을 재구성하고 참고 교재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법면에서는 도덕적 자아의 형성, 인격적 감화, 행동의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토론학습, 조사학습, 역할놀이 학습이 바람직하다.

둘째, 통합교육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인성교육의 방법을 실시한다.

넷째, 가풍양식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열린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한다. 그 중 현장체험학습이 효과적이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의 제공은 물론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과 건전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본 논문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II. 경로 효친 사상과 교육	4
1. 경로 효친 사상	4
2. 경로 효친 교육	12
III. 초등학교 도덕과와 경로 효친 교육의 실제	26
1. 초등학교의 도덕과 교육 과정	26
2. 초등학교 도덕과의 경로 효친 교육	37
IV. 초등학교 도덕과 경로 효친 교육의 활성화 방안	42
1.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체계화	44
2. 통합교육 방안의 강구	48
3. 인성교육을 통한 경로 효친 교육	50
4. 경로 효친의 가풍 형식 교육	51
5. 열린 교육을 통한 경로 효친 교육	54
V. 결론	59
참고 문헌	62
Summary	65

I. 서론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을 도덕의 근본으로 삼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윤리적 전통을 이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산업화에 의한 경제 부흥을 도모하는 국가정책이 추진되고 또 부분적인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인간소외, 도덕적 해이, 도덕 불감증 등과 같은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이 만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급격한 유입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사상적인 극한 대립으로 집단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전통문화의 기반이 위협받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경로 효친의 윤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효’란 연소자가 노령자가 봉대함을 의미하고, 또한 어의로 풀이하면 ‘효도 효(孝)’하고 자녀가 노친(老親)을 섬기는 덕행(德行)’을 의미한다. 「효경」에서는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 하고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서는 “효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덕을 이룬다는 것이며, 또 효를 행한다는 것은 인(仁)에서 나온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효는 인간의 중대한 윤리행위로서 백행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 효는 가정에서 부모에게만 행하는 가족윤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덕행을 쌓아 공명정대한 태도로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는 사회윤리로서도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의 진정한 의미는 한 개인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미덕이라기보다는 일개인의 효도가 실현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敬)은 원래 자연이나 하늘의 위대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경로는 웃어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의 웃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을 말한다.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어버이와 같은 웃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효의 가르침 없이 경로를 말한다는 것은 형식으로서, 타율적 규제로서의 경로를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경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효친의 마음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효친의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실의 근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경로 효친의 의미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나아가 사회 웃어른을 자신의 부모처럼 잘 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모든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전통윤리의 기본인 경로 효친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세대로서 좋은 행동을 습관화하고 인격을 기르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이웃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내용의 성격상 바람직하다. 즉 가정에서 웃어른들의 모범과 훈화 및 체험을 통하여 습관화하고 내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은 핵가족화와 주부의 사회생활 증가로 가족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적 사회풍조의 탓으로 부모와 자식, 형제들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그 교육적 기능을 많이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정부수립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작된 이래 경로 효친의 전통윤리교육이 계속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한 지식과 기술위주의 암기식 교육방법으로 인해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보면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로 효친 사상을 생활 규범화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예절의 습관과 가치관의 형성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초등학생들이 경로 효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문서적과 관련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경로 효친 사상을 소개하고 그 교육에 대한 의의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해설서, 교사용지도서를 중심으로 현행 제6차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를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경로 효친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정리하여 실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물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도덕과의 경로효친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독자적인 교육-학습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지 않고 개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Ⅱ. 경로 효친 사상과 교육

1. 경로 효친 사상

1) 경로 효친의 의미

‘효(孝)’자를 자의로 풀이하면 늙을 ‘노(老)’의 약자와 아들 ‘자(子)’를 합친 것으로 ‘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를 업고 있다’는 뜻의 회의문자이다. 즉 연소자가 노령자를 봉대함을 의미하고, 또한 어의로 풀이하면 ‘효도 효(孝)’라고 하여 자녀가 노친(老親)을 섬기는 덕행(德行)‘을 의미한다.¹⁾

전통적인 효는 부모에 대하여 절대적인 복종, 봉양, 경애, 간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옛날의 효를 강조한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면서 부모와 자식관계도 절대적이고 복종된 관계에서 인격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효는 타율이나 구제, 강압, 형식, 자기 상실이 아니라 자율과 참여, 자기 확충과 자유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²⁾

경(敬)은 원래 자연이나, 하늘의 위대함에 절대적이고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경로는 웃어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의 웃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을 말한다. 이런 ‘경로는 효에서 시작되어 효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

효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주고 받는 사랑의 정으로서, 이는 인위적이거나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자율적인 이정의 나타남이다. 흔히 부자자효라고 표현되듯 효의 본질은 부모의 한없는 내리 사랑에 대한 보은의 정이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도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동몽선습」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은 타고

1) 유정기(1965) 「동양사상사전」, 고문당출판사, p.156

2) 제주제일중학교(1996), 「인성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p.13

3) 권종숙(1997), “청소년기의 ‘효’윤리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p. 22-23

난 성품이 친하다. 아버이는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고, 가르치며, 자식은 받들면서 뒤를 잇고 효도하며 봉양한다.”⁴⁾라고 나타나며, 「명심보감」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도다. 그 은덕을 갚고자 하나 그 은혜가 하늘같이 높아 갚을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⁵⁾라고 나타나며, 「격몽요결」에서는 “부모는 나에게 이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모든 물건을 다 준다해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하리요,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뚱이를 가졌다해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요. 사람이 능히 항상 이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나타난다.⁶⁾

이와 같이 효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생산과 양육의 은혜에 대한 보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지만,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이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옛부터 효도를 강조한 것이 너무 지나쳐 효는 오직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만 오해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효가 가족과 형제에게 미치게 되면 효제가 되고 이웃과 사회에 미치면 신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에 미치게 되면 충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인 효는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구현하는 가족윤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윤리의 시원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전에서 살펴보면 「효경」에서는 “효는 모든 덕의 근본”⁷⁾이라고 하고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서는 “효는 인을 행하는 근본”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덕을 이룬다는 것이며, 또 효를 행한다는 것은 仁(인)에서 나온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효는 인간의 중대한 윤리행위로서 백행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孝經(효경)」에서 “효도란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몸가짐을 바르게 하

4) 이석호 역(1971), 「동몽선습」, 을유문화사, p.24

5) 이민수 역 (1969), 「명심보감신역」, 을유문화사, p.40

6) 이민수 역(1971), 「격몽요결」, 을유문화사, pp.66~67

7) 장기근 역(1982), 「효경」, 평범사, p.426

8) 상계서. p.27

고 바른 도를 지켜 후세에 이름을 높임으로써 부모까지도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 단계이다.”⁹⁾라고 한 것과 같이 효는 가정에서 부모에게만 행하는 가족윤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덕행을 쌓아 공명정대한 태도로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는 사회윤리로서도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의 진정한 의의는 한 개인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미덕이라기보다는 일 개인의 효도가 실현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어버이와 같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효의 가르침 없이 경로를 말한다는 것은 형식으로서, 타율적 규제로서의 경로를 말하는 것이자 진정한 의미의 경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로는 자기부모를 공경하는 효친의 마음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효친의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실의 근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경로 효친의 의미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나아가 사회의 웃어른을 자신의 부모처럼 잘 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로 효친의 의의¹⁰⁾

전통은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간에, 또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간에 문화적으로 우리를 결정한 요인이며, 우리의 문화적 생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생리와 같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 바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전통의 힘이 미치는 세계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로 효친사상은 그것이 지선(至善)의 인간 윤리로서 이론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율하는 도덕적 원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맹목적으로 신봉되어서도 안될 것이지만 그것의 시대성 때문에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경로 효친사상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

9) 전계서, p474

10) 이돈희(1985), “경로효친의 정신과 의의”, 「경로효친의 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pp.55-57

게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조하여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첫째, 경로 효친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인간 가치를 인식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형성되는 본능적인 친애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인식시키고 또한 그것을 확대하여 인간세계의 도덕적 질서를 형성하였으며 세련되고 숭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치를 가르쳤다. 물론 그 사상이 지닌 시대적인 한계성과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 구현에 때로는 역기능도 하였지만 우리 민족은 경로 효친의 사상과 더불어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이치를 생각하였다.

둘째, 경로 효친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인간사회의 결속과 그 질서의 원리를 가르쳤다. 우리 역사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강한 정적 유대와 통일체적 의식은 가부장적 윤리인 효의 사상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는 힘을 생산하였으며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제공하였다. 비록, 개인의 가치가 전체 속에서 매몰되고 때로는 복종적 삶을 타성화 시키는 역기능을 낳기도 하였지만, 경애와 효친의 사상은 따뜻하고 정다운 가정과 이웃을 만드는데 그 길잡이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 사회적 미덕은 비정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오늘의 조직사회가 겪고 있는 기계적-물리적 질서의 비인간화를 예방시키는 데 있어서 귀중한 도덕적 바탕이 되고 있다.

셋째, 경로 효친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가정이 가진 도덕적-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우리 민족은 탁월한 가족 문화를 소유해 왔다. 우리의 전통적 가족은 도덕의 본산으로서 그리고 인격의 온상으로서 그 교육적 기능을 다해 왔다. 부모의 구체적인 업적은 자식의 도덕적 수준으로써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 고매한 도덕성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옛날 사람의 말 속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비록, 그러한 교육적 기능이 주로 지배계층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 교훈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인격의 바탕과 그 성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의 전부를 감당한 것이었다.

넷째, 경로 효친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미풍과 양속을 일으키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미풍과 양속은 모두 이 효의 사상을 실천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부 상조의 정신이

나 경로(敬老) 경장(敬長)의 의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경로 효친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예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경로 효친의 사상을 실천하는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록 그러한 미풍과 양속이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일면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름다운 습속과 관행의 뜻을 기르 고자 하는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현대적 생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섯째, 경로 효친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의 명분을 증허 여 기는 엄격성을 길러 주었다. 모든 덕행의 근본을 효제와 경애에 귀일시키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경로 효친의 원리에서 구함으로써 의를 판별하고 의를 실천하는 생 활의 본을 찾고자 하였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자식의 불 른은 어디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기초한 명분주의는 때때로 사고의 경직성을 낳아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고고한 절개와 강인한 지조 의 원천이 되었고 불의에 대한 저항과 사육에 대한 경계의 힘을 돋우어 주었다. 명 예로운 가문의 의식은 고매한 인격을 낳은 바탕이었다.

3) 경로 효친의 교육적 의미¹¹⁾

(1) 자아의 생성에 대한 보은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부 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식된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잘 보호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가장 초보적인 과제라고 하였다. 물론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한 분들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바로 나의 육체 그것을 지 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온갖 섬김을 다하기 전에 먼저 자신 의 생존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택이란 단지 육신을 낳아주고 또 그것을 길러주는 일만은 아니 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의 인격체 전체를 생성시켜 주는 하나의 삶 의 세계이며 하나의 자아를 생성하는 산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생물에 불과하 다. 그것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기능적으로 무력하다. 그 생명체가 생존하고 성장

11) 전계서, pp.59-65.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실제적으로는 그 어린 생명체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잠재성에 있어서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능력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양육하는 일에는 엄숙한 도덕적 긴장이 따르고 생명에 대한 경건한 경애감이 있게 된다. 하나의 육체가 태어남으로 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태어남으로 해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동물적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난다.

효도는 이제 그 또 하나의 인격체, 즉 그 만남의 대상,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서의 만남의 대상에 대한 도덕적 의무, 즉 보은의 의무이다. 그 도리를 다함으로써 어린 인격은 그 속에서 생성된 자아를 성장시키고 세계를 보며 삶을 알고 삶을 산다. 그러므로 효도는 단지 객관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삶 그 자체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식은 부모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세계를 보면서 자아를 생성시키고 그 관계를 통하여 인격을 성장시키며 그 관계에서의 의무를 통하여 영장으로서의 자아가 기거하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효도의 생활은 단지 윤리적 의무의 수행만이 아니라 교육 그것이기도 하다. 사실상 모든 다른 제도적 교육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성장한 인격을 더 이상 가꾸고 그 세계를 더 넓혀주는 보조적 작업에 불과하다고 해서 결코 무리는 아니다. 인격의 본체는 이미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제도적 교육이 시작된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 교육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관계는 영원히 종결되지 않는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인격은 자식의 인격 속에 남아서 영원히 대화한다. 이러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보은의 정과 그 도리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법이며 그 도리를 다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인격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효도를 교육한다는 것을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베푸는 물리적 돌봄이나 정신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답하는 감정과 실천의 습관을 형성하는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학생의 자아와 인격에 대하여 지극히 주변적인 일에 한정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부모라는 인격적 존재가 학생 각자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바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끝없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

에 어찌면 인간의 삶 그것의 전부를 음미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2) 조건없는 애정

인간은 그 부모로부터 최초의 가장 진실된 애정을 경험한다. 그 애정은 아무런 조건없이 주어지는 애정이다. 그것은 또한 애정에 대한 최초의 학습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격체가 인격체에 대하여 가지는 애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애의 본질, 그리고 인간애의 전부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 소재일 수가 있다. 물론 부모와는 혈연적 관계에 있으므로 그 애정은 어찌면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고 자연적인 것이기도 하므로 모든 인위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인간의 애정과는 다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특히 조직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우정이나 우연적인 사태에서 맺게 되는 일시적인 친교의 정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깊은 애정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므로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정에 미루어 남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인간의 본래적인 애정이 연장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또한 모든 인격체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남의 기쁨과 슬픔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에서 애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은 물질적 이득이나 손실, 또는 제3자의 행운이나 불운 등과 같은 주변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전인적 만남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사이에서 자식으로서 체험하는 애정을 능가하는 인간애의 순수성을 달리 찾을 수가 없다. 그러한 애정의 질을 갖지 못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애정의 감정도 순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모로부터 받은 애정, 그리고 그러한 애정으로써 이루어지는 두 인격체의 만남에서 체험한 바를 또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소박하고 순수한 인간애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애정의 교육적 소재로서는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바 이상의 것은 없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애정에 미루어 모든 인격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애정을 교육하는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남의 부모 혹은 내 부모격의 사람들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자신

의 부모에게서 체험한 애정을 실현하는 가장 손쉬운 상황이다.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바의 애정에 대한 음미없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부모가 베푸는 애정의 본질, 그리고 자신이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애정의 의미에 호소하여 인간애의 순수성을 가장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다.

(3) 도덕적 기준의 1차적 인식과 양심의 바탕

부모와 자식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 아무리 자연적이고 전인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애정이 아무리 조건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선악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며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는 기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관계는 무질서한 감정의 엉클림도 아니며 끝없이 맹목적인 결합만도 아니다. 부모의 인격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대변하며 삶의 질서를 밝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의 모든 기본적 도리를 자식은 최초로 부모에게서 학습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습이니 만큼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가정의 밖에서 그 도리를 실천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비정함과 몰이해 따위는 없는 법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세계는 도덕적 실천의 세계라기보다는 수련의 장이다. 제도적인 교육이 체계적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비하여 가정은 우연적인 상황에서 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의 언급을 통하여 즉시적으로 수련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다 생생한 경험에 접근하고 도덕적 습관과 함께 강한 정조를 형성시킨다.

가정에서 형성된 도덕적 습관은 그것이 도덕적 규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의 경험이 없이 형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맹목적일 수가 있고 또한 충분한 이해와 비판의 과정을 겪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직된 기계적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 맹목성과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후속적인 교육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맹목성과 경직성이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반드시 역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반성적 검토를 거치지 못한 규범을 좇는 습관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인식된 규범의 내면화와 그 실천의 습관화는 바로 인간의 양심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 말하자

면 착하고 의로운 것을 좇으며 규범과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양심의 일차적 특성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그러한 선천설(善天說)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양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양심(良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도덕적 동기와 선악(善惡)을 분별하는 내심의 판단력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오늘의 윤리학이나 심리학에서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실천적 동기는 합리적 판단의 이전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전자를 양심의 일차적 특징이라고 하면 후자를 이차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일차적 특징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차적 특성은 지적인 도야에서 따라서 그 수준이 향상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양심의 바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양심의 일차적 특징은 바로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도덕적 규범의 준수 습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부모에의 순종을 생활화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모에의 순종은 도덕적 의무감을 형성시키는 소박한 도덕교육의 원리이다. 어릴 때 효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질서가 마음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태의 인간, 즉 자연그대로의 인간을 도덕적 세계로 입문시키는 초보적인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2. 경로 효친 교육

1) 경로 효친 교육의 성격과 목적¹²⁾

경로 효친의 바탕은 효(孝)사상이다. 유학사상에 있어서 효는 도덕적 질서의 근본이다. 즉 모든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기초이며 도덕적 질서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효는 덕행의 근본이자 교화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효는 타고난 것으로서 모든 인간으로써의 바탕이면서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효는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비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그 근거는 인간에 있어서 마땅함과 바람직함이다. 효는 자연에 있어서 천리와 같은 인간의 의무적

12) 양방주(1997), “학교경로효친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제주(98)」, p.14

사회적 차원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효의 내용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사이다. 살아 생전에 공손하고 걱정을 끼칠 일을 받들어 널리 알리고 잘 부양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한편 돌아가셨을 때는 추모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제사를 봉행하는것 등이다. 효의 방법은 자각적으로 혹은 교육에 의해 의지와 능력을 길러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효는 부모와 자식간, 형제 간의 도덕적 규범으로서 가족윤리로 기능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공동체의 윤리로 확대되어 나간다. 이를 통틀어 경로 효친이라고 한다. 경로 효친은 인격의 형성과 성장, 인간애, 도덕적 규범의 학습과 양심의 형성 등의 교육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로효친의 교육은 자각적인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여 어버이와 이웃 어른에게 경(敬)과 애(愛)를 다하게 하는 교육이다. 경로 효친의 원리는 경로 효친하는 습관의 형성, 경로 효친하는 태도와 감정의 형성, 경로 효친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도출된 기준에 의한 판단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경로 효친 교육은 '사람됨'과 '사람됨'을 위한 인성교육, 가정과 사회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예절, 덕목교육 도덕적 사고력과 의지를 기르는 가치관교육, 문화전통과 국민도의를 확립하는 고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경로 효친 교육은 인간의 근본원리에 충실한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경로 효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규범과 생활예절을 익히며, 도덕적 판단능력을 길러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도덕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 효친의 기본 예절을 익히고 경로 효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며 경로 효친의 실천의지와 능력을 함양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격화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2) 경로 효친 교육의 역사

동양의 전통적인 효의 사상에 대한 윤리학적 분석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한계점을 노출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서 교육의 체제이기도 하다. 동 서양의 교육사를 통하여

있어 왔던 은갖 교육론(教育論)들 중의 많은 경우가 치명적인 이론적 결함을 가진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사상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론의 이론적 정당화는 그 원천이 되는 기초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초 이론 그 자체가 비판과 분석에 의하여 결함을 노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론이 폐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배척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다. 교육론(教育論)은 그 기초 이론과 운명(運命)을 같이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의 지혜나 원리(原理)는 그것이 어떤 이론에서 도출된 것이든지 간에 그 자체로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교육의 실천을 위한 지침으로서 길잡이의 역할(役割) 한다. 그러한 경향은 사실상 유교의 윤리관에 의한 효(孝) 사상과 그것에 의한 교육론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 효의 사상은 효도가 한 인격체의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지혜로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인격의 형성과 성장, 인간애의 원천, 도덕적 규범의 학습과 양심의 형성 등에 걸쳐 효도의 교육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폭넓은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그 지혜는 오늘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재음미되어야 하는 것임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현대적 상황에서의 한계성도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윗사람에 대한 공경은 특히 인격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또한 소재이고 인간 세계의 이해와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원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³⁾

우리나라의 고대 교육제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효관념을 중요한 기본교과로 삼아왔다. 고구려의 학제(學制)와 국당제도(國堂制度)에 있어서 독서 습사(習射)한 내용이 오경(五經), 삼사(三史), 문선(文選), 자학(字學), 문학(文學), 사학(史學), 철학(哲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철학인 오경(五經)이 주과목이었으며 이 오경사상(五經思想)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仁)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효경」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신라의 국학에서 「논어(論語)」와 함께 필수과목으로 다루어 졌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¹⁴⁾

13) 이돈희(1985), 전제서, pp.55-57

14) 增補文獻備考, 권207, 學校考 6 (憲康王五年) 新羅學制以周易尙書毛詩禮記 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 一人或以 禮記周易 論語 孝經或以 春秋左氏 傳毛詩論

그리고 신라 원성왕때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¹⁵⁾에서도 효경이 역시 필수과목이었고 특히 신라 진흥왕대의 화랑도의 정신을 집약하면 효, 제, 충, 신이라고 삼국유사에서 일연(一然)이 말하였다. 또한 원광법사는 청년교육의 지침으로서 세속오계를 말하였으니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유신(交友有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이라 하여 충효신용의(忠孝信勇義) 등 효사상을 강조하였다.

또 고려 인종때 식목도감에 의하여 설정된 학식을 보면 국가감의 학생은 「효경」과 「논어」는 심금겸통(心今兼通)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효경」과 「논어」는 다 같이 일년간 학습하되 누구나 「효경」과 「논어」를 다른 제경(諸經)보다 먼저 읽어야 된다고 규정하였었다.¹⁶⁾

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학령(學令)」에 효경에 대하여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유교숭상의 문교정책을 취한 조선시대에서는 「소학」을 비롯한 「동몽교학서」 및 오륜행실도 그리고 향음례(鄉飲禮) 등 향풍정화정책(鄉風淳化政策)을 통하여 유교적 효의 사상을 주로 학습시켰다.

이와같이 전통적인 우리의 교육은 덕성 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인(仁) 효제(孝悌) 충(忠)여 등을 가장 강조하여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맹자에서도 「설상서지교 신이교제지의 영백자불 부재어도노의(說庠序之教 申以教悌之義 頌白者不負載於道路矣)」¹⁷⁾라 하여 윤리교육의 중점을 효에 두었음을 알 수 있고, 효경에서는 가정윤리로서의 효가 사회윤리, 국가윤리로 확대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우리의 교육은 인격형성 필요한 덕성함양에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인륜지덕으로서의 효교육이 불가피했던 것이다.¹⁸⁾

서구의 서양교육사를 잠시 살펴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교육 중세의 교회교육 근세의 Renaissance · 인문주의교육 18C 자연주의 및 국가주의교육 20C 민주주의교

語孝經 或以 尙書 論語孝經文選教授之

15) 讀書三品科: 三品, 上品(左傳, 文選, 禮記, 論語, 孝經) 中品(曲禮, 論語, 孝經) 下品(曲禮, 孝經) 特品(五經, 三史, 諸子百家書)

16) 高麗史, 卷74, 志28 選舉2, 學校 孝經論語必令兼通 諸學生諸業 孝經 論語共限一年 …… 旨先讀孝經論語 次讀諸經拜算習時務策 ……

17) 孟子. 梁惠王上

18) 윤사순(1984),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을유문화사, pp.173~175.

육 등에서도 효교육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¹⁹⁾ 기독교적 윤리의 토대 위에 형성된 서양교육에서는 성서에서 강조한 효행교육이 전연 언급되지 않았고 서구신학에서조차도 부자지간의 천륜의 효를 말하거나 효 심정을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한 것이 거의 없다.²⁰⁾ 더구나 서양윤리학에서도 효의 윤리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효를 절대적 도덕율로서 강조해 왔던 우리 전통사회와는 달리 효라는 덕목을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전통속에 소화시켜온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서구문물의 무질서한 홍수로 인하여 가족제도와 사회윤리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물론 교육은 현대적 요구에 따라야 하겠지만 급격한 사회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인간다운 도덕성을 고갈시키고 효의 관은 무조건 고상한 관념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우리 사회를 「교육부재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전통윤리와 현대윤리가 같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전통윤리의 대표적인 효사상이 자리잡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평등주의 반예의주의의 전통적 윤리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²¹⁾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정배경이나 성장지역의 차이에 따라 전통윤리와 현대윤리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갈등 문제와 관련지어 어떤 방향으로 덕성교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효의 윤리가 최고의 선이고 무조건 그것을 수용하라고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날 것도 아니고 현대윤리는 퇴폐적이고 나쁘다고 해서 효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3) 경로 효친교육의 필요성

가정은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단위(單位)일 뿐만 아니라 삶을 시작하는 최초의 세계로 여기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이 사회적 삶의 기초가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된다.

가정에서의 인간의 만남은 자연스런 인간애의 감정을 형성하고 인류애의 기반을

19) 손인철, 서양교육사, 참조

20) 기독교윤리학, (195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1) 정세구(1985), "경로효친과 현대윤리와의 갈등과 그 지도", 「경로효친의 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pp.154~157.

만드는데 친애(親愛)와 효제(孝悌)는 그 속에서 발견된 최초의 덕목이며 인간의 관계를 규율(規律)하는 최초의 규범(規範)이다.²²⁾ 그러므로 유교에서 효를 백해(百骸)의 근본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판단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사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부자간의 친애관계는 계약(契約)이 아니요 무조건적인 것으로 친애의 정은 인정의 발로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나의 자식을 사랑하므로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의 자식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를 존경(尊敬)하므로 남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도덕생활의 근본으로 삼아왔으며 예의를 존중하고 인정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전통(傳統)을 가꾸어 왔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근대화를 급속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핵가족화 현상이 일반화 됨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은데서 생긴 노인문제와 산업사회의 부수물로 생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가족윤리를 정립해야 되는데 효는 아버지와 자녀간에 형성되는 원초적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가정윤리로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충은 모든 대상 앞에서 실천될 수 있는 자기를 다하는 성실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속에는 가정에서의 효가 언제나 나라에서의 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효사충(移孝思忠)의 정신이 가정과 나라를 하나로 연결하는 뜨거운 국가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효를 일체라고 한다.²³⁾

효도라는 말이 기록상 처음 쓰여지기는 한서 문제기(文帝紀)의 「영사효도(永思孝道)」라는 문구라 한다. 연소자가 노령자를 봉대함을 의미하고 어의로 말하면 그것은 「효도 孝」자로 자녀가 노친을 선사(善事)하는 덕행(德行)을 의미한다. 즉 효(孝)란 사친(師親)의 덕행 및 경로(敬老)의 도리(道理)로 「효경(孝經)」에 의하면 첫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닦고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둘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며 세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며 네째 뜻을 세우고 정의 인도를 행하는 입신행도(立身行道)라 하였다.²⁴⁾

22) 이돈희(1985), 전계서, p.51

23) 교육부 (1985), 「경로효친교육」, p.12

효친의 도리 즉 노친을 잘 섬기는 도리에는 양신(養身)과 양심(養心)이 있다. 양신(養身)은 물질적 신체적 봉양(奉養) 즉 의식주를 넉넉하게 하여 육신(肉身)을 안일하게 모시고 평소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병환중에는 의약으로 잘 간호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잘 협조하여 드리는 일이며 양심(養心)은 정신적 봉양을 말하는데 「효경(孝經)」에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데 보통 거쳐할 때에는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다하고 봉양(奉養)할 때는 즐거워 하도록 하며 몹시 근심하고 죽으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지내는 데는 엄숙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효도(孝道)는 사랑과 공경(恭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정성어린 심정과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정신적으로나마 항상 부모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모 아닌 남의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이론적 근거는 내 부모와 내 선조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내 부모의 자식이요 내 선조의 자손인 형제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형제간의 도리 즉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심이 사회적으로 연장된 것이다. 이와같이 초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노인이거나 자신보다 연장자이면 그가 아무리 밋고 못나고 천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나 형제의 친지일 수도 있고 내 선조의 자손 즉 나의 먼 친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경로(敬老)의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²⁴⁾

오늘날 한국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고정적 폐쇄적(閉鎖的) 민족적(民族的) 공동사회(共同社會)에서 자발적 협력과 유기적(有機的) 연대성(連帶性) 그리고 선택적 의지(意志)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익사회로 변천되는 과정에 있다.²⁵⁾

해방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사조의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전례없는 발전과 변화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구문화는 현대세계를 이끌어 온 만큼 충분한 수용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수용태세의 잘못으로 오도되어 종래의 전통적 가치관과 마찰 및 갈등을 일으켰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근대적인 가치관 미정립속에서 대립, 갈

24) 안창범(1986), 전계서, pp 55-57

25) 상계서, p.27

26) 상계서, p.26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부적응과 청소년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는 전통적(傳統的) 윤리의식(특히 경로효친)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탄력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대립·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가 시급하다.

우리의 교육도 해방 이후 현대화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인을 기르기 위한 뚜렷한 이념이나 목표없이 외국교육의 형태와 방법만을 모방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지난 50여 년의 현실이다. 참다운 한국인을 길러내는 일은 곧 국민적 자아의식을 발전하는 길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일이다. 이러한 주체적 교육의 요체(掬體)가 되는 것은 민족 문화유산의 계승과 창조적 개발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을 강조함으로써 젊은 세대로 하여금 투철한 민족관을 확립함은 물론 민족의 '얼'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정통을 예의와 도덕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지난날 우리 윤리교육의 핵심을 이루었던 경로 효친사상을 재음미하고 재건하며 교육할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것이다.²⁷⁾ 그러면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이 어느 면에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어떤 각도에서 경로 효친교육이 요구되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경로 효친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부터 물질만능주의 풍조(風調)가 만연(漫然)하게 되어 인간경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금전을 추구하며 모든 것, 심지어 인간까지도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짙어 인간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경로 효친의 생명존중사상을 통한 인간존중의 정신을 교육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회복하고, 청소년들이 장차 성인이 되어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 효친교육이 필요하다. 공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화(修身齊家治國平天化)」라 하였다. 먼저 자신을 수양(修養)하여 덕(德)을 쌓아 가정을 다스리고 그후 국가사회에 책임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은 모든 인간생활의 기본이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정의 기능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흔히

27) 윤병석(1977), "학교교육을 통한 충과 효", 「교육평론」, 교육평론사, pp.76-77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라는 말은 오늘의 한국 가정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를 변화함으로써 조부모, 형제, 친척 등의 청소년 교육에 미칠 수 있는 건전한 영향력은 감소되었다. 공동사회에서 이의사회로의 변천에 따른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력의 약화는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노인소외 등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자효가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며 자애롭게 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고 존경한다면 원만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또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본받아 성인이 되었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부자(父子)자효(慈孝)로서의 효는 호혜적(互惠的)인 원리로 부자간 종속관계 이기에 앞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랑이다. 사랑이 부족한 현대사회 특히 가정에서 경로 효친을 재삼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셋째, 개인적 이기주의(利己主義)를 극복하고 협동과 봉사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경로 효친교육이 필요하다. 서구사회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개인의 자아를 그 정신적 바탕으로 삼아왔다. 자아와 자율 속에서 개인주의는 근세에 들어오면서 더욱 찬란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의 문화 규범속에서 개별성보다는 전체성이나 집단성을 우선시키는 생활(生活) 의식(儀式)속에서 살아 왔다. 이로 인하여 권위에의 순응을 낳았으며 그것은 곧 개인의 자아를 규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한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문화적 규범위에서 서구의 개인주의·자유주의가 근대 이후 우리에게 전수(傳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나 권리에 대한 지향은 앞섰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와 봉사의 규범문화는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며, 잘못되어 방종(放縱)과 무질서(無秩序)가 나타나게 되었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어 전체의 사회적 통합과 단결을 깨게 되었다.²⁸⁾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기적이 되어 협동정신과 단결심(團結心)의 결여(缺如)로 공동체의식이 저해되고 있다. 이처럼 과당경쟁(過當競爭)은 남을 누르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利己主義)로 이어지면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은 사라져가고 있다.

경로 효친은 나만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것이며 곧 봉사정신이다. 봉사심은 이기

28) 김대환(1977),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 「국민윤리연구 제6호」, 형설출판사, pp.18-19

심을 극복하고 협동심으로 이어진다. 경로 효친의 원리를 통하여 공동체에 봉사하는 정신, 남을 위하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경로 효친교육이 필요하다.

4) 경로 효친 교육의 원리²⁹⁾

경로 효친의 교육은 그것의 성격상 도덕 교육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도덕 교육은 주지적 교과의 교육과는 달리 지식의 이해와 이론적 판단에 주된 관심을 받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 교육은 다른 교과의 교육과는 달리 반드시 정규의 수업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의 안팎에서 거의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행동과 습관, 인간과 사물에 대한 정서와 태도 등도 그것에 못지 않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 교육(그리고 경로효친의 교육)을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첫째, 습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의 차원이다. 도덕적 습관은 규범을 지키는 행위의 습관을 의미는 것이지만, 그것은 규범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구체적 행동의 반복적 형태로부터 고도의 생활 원리를 지키는 인격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이웃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빠짐없이 인사하는 습관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의 반복이지만 우연한 난관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습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의 반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정된 습관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구체적 행동의 반복은 아니지만 사고하는 생활원리의 습관적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습관은 한 인격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적 특징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습관적 특징을 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진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 혹은 사고의 습관적 특징을 두고 묘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둘째는 동기나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의 차원이다. 태도란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물이나 추상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긍정적 혹은

29) 이돈희(1985), pp.66-73

부정적 반응의 성향이며, 동기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추진적인 힘과도 같은 것이다. 태도와 동기는 그 강도에 따라서 다소간의 정서나 감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행위의 실천적 원동력이 된다. 도덕의 생활은 실천의 생활이니만큼 구체적인 행동의 규범이나 추상적인 생활의 원리를 실천하는 습관의 정의적 조건이 된다. 순화된 정서는 바로 도덕적 동기와 태도를 세련되게 하고 인격을 안정시킨다.

셋째는 도덕적 규범과 원리의 이해 그리고 그것에서 도출된 기준에 의한 판단의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차원이다. 행동의 규범과 생활의 원리, 규범들 혹은 원리들 간의 관계, 이들에 의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 생활 사태에서의 판단의 원리 등에 관한 이해와 사고의 능력이 이 범주에 속한다. 도덕은 그 자체의 본질상 실천적인 것이지만 도덕적 행위에서 지켜지는 규범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자발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위의 세가지는 도덕적 행동이나 생활의 차원을 이론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하나의 과정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1) 경로 효친하는 습관의 교육

‘습관’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 구체적인 행동의 반복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것에서부터 추상적으로 설명되는 생활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것이 있다. 습관을 구체적으로 행동의 반복으로만 이해한다면 사실상 학교가 도덕 교육 일반이나 경로 효친의 교육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을 받게 된다. 기껏해야 인사하는 습관이 언어적인 습관 따위들을 지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습관의 개념을 감정이나 정서를 관리하고 반성과 판단을 행하는 정의적, 인지적 차원의 것과 관련시켜 생각하면 학교의 수업과 생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다.

첫째로 학교는 저마다의 가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습관들, 예컨대 인사법이나 행동이나 말씨나 몸가짐을 교정하는 일이 있다. 비교적 좋은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교가 별다른 교정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웃사람이나 동료에 대하여 지키는 행동규범의 표준적인 관습을 따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습관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보다 아름다운 행동과 고운 말씨를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표준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인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학교는 부모나 스승이나 이웃의 어른 그리고 나라의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유의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고 의욕을 실천하고자 할 때의 안정되고 순화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경로와 효친은 반드시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상태에서 비범한 사람들만의 실천하는 정신이나 덕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인이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는 모범적 사례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모범이라는 것이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별로 의미는 없다.

셋째, 학교는 경로와 효친의 의미, 그리고 웃어른의 업적과 권위 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과 양속 등에 관해서, 또한 웃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도덕적 해결의 원리에 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습관의 지도란 규격화된 생활의 방식으로 길들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감정과 인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시키는데 그 일차적인 과업이 있다.

(2) 경로 효친하는 태도와 감정의 교육

경로와 효친은 일차적으로 사람됨의 도리로써 지켜야 하는 의무감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직이나 준법 등의 덕목과 유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때로는 냉엄하고 비정하기도 한 이성적인 자세나 판단보다는 깊은 인간적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그러나 경로와 효친에 있어서의 그러한 인간적 감정은 불행이나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정심이나 측은감과 같은 일종의 은전으로서가 아니라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지닌 의무감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로와 효친의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습관이 아무리 일관되고 또한 세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과 생활을 도덕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과 생활을 도덕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존경과 공경의 정신이 따른다면 다소 잘못 판단된 우직한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반드시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경로와 효친의 덕목은 그 자체가 부모나 어른에 대한 깊고 따뜻한 존경과 공경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로와 효친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존경과 공경은 반드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 온 늙은 분들에게 본능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소박한 감정의 표현 그대로써 다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능처럼 꾸밈 없는 마음과 도리에 맞고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마음의 따뜻함만이 아니라 정성과 성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절도와 법도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경로와 효친은 순화된 감정과 안정된 정서로써 표현되어야 하는 덕목이므로 극한적인 자기 희생을 강요하거나 맹목적인 극렬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격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는 안정되고 통합된 인격을 교육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열이나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고뇌에 속박된 인간을 기르려 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로 효친의 정신을 이해토록 하는 교육

경로와 효친을 포함해서 우리의 도덕 생활에는 수많은 규범들과 원리들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의 생활 상황에서는 전통 사회에서 효도를 백행의 근본으로 하는 바와 같은 위계적 가치 질서가 형식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며, 또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수단적인 것인가를 명백히 말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규범체제를 가지고 생활할 때는 규범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대등하게 상충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 규범이 저 규범에 비하여 우위에 있게 되지만 저 상황에서는 저 규범이 이 규범보다 우위에 있게 되기도 한다. 이말은 경로와 효친의 규범도 다른 규범과 때로는 대등하게, 때로는 우위에서 때로는 덜 중요한 위치에 있게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 따라야 하는 판단의 기준은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와 관련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첫째, 경로 효친의 사상을 낳은 전통 사회의 윤리적 질서의 특징과 현대적 윤리에서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이해이다

둘째, 경로 효친의 규범이나 다른 규범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관한 이해

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효도란 백행의 근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규범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효도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은 중국적으로 부모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부모가 한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도덕적 위치와 의미는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논리로서 그 중요성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로와 효친은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 근거한 모든 도덕적 규범과 관련을 가진다. 그러므로 경로와 효친은 교육에서 하나의 독립된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 체제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경로 효친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생활의 사태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다른 규범과의 대립과 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 관한 이해이다. 물론 이러한 대립 혹은 인간의 도덕적 고민의 원천이 되는 것이나 어느 하나의 선택으로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도덕 교육의 가장 본격적인 활동은 문제 해결의 원리를 획득하는 지적 연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Ⅲ. 초등학교 도덕과와 경로효친 교육의 실제

1. 초등학교의 도덕과 교육 과정

1)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 교육³⁰⁾

학교 도덕교육은 도덕윤리과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생활 및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그리고 교과 교육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교도덕 교육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문헌 자료에 의거하여 포괄적이고 예비적인 수준에서 학교 도덕교육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어떠한 도덕 교육의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이 어떠한지와 도덕과의 편제와 시간 배당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같은 측면들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학교 도덕 교육의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총론에서 표방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보아 해방 이후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각 주기의 교육과정은 각각 교육에서 강조해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1955년 고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히 요청되는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교육을 강조

제2차 교육과정(1963년 고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강조.

제3차 교육과정(1973년 고시)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30) 교육부(1993),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Ⅱ)」, pp.52-54

교육의 쇄신

제4차 교육과정(1981년 고시)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제5차 교육과정(1987년 고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제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특히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을 강조.

위와 같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강조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우리의 학교교육에서는 도의 교육 혹은 도덕 교육을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도덕적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도덕과의 편제와 시간배당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인간상을 통해 도덕 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한 도덕 교육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과목으로서 도덕과의 변천 또한 학교교육에서 도덕 교육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도덕과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보면, 상당한 변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관된 흐름도 있는 것 같다. 첫째, 제2차 교육과정기에 ‘반공·도덕생활 영역’이 설정된 이래로 도덕과가 점차 교과로서 정착되어가는 흐름을 볼 수 있다. 곧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도덕과와 고등학교의 국민윤리과가 정착되어 제6차 교육과정에까지 이르게 됨을 볼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덕과의 편제와 시간 배당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윤리가 초등학교 도덕보다 더 교과로서 정립되어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도덕윤리 담당 교사의 수급 문제라는 보다 실제적인 요인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³¹⁾

(1)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과 교육의 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성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 진술만으로 도덕과 교육의 과제를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도덕성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 혹은 규범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의 도덕성은 ‘선악 판단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덕성의 지(知)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둘째, 도덕성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나 성향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도덕성의 행(行)적이며, 이를 실천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우리는 전자(前者)의 것을 도덕성의 ‘지적인 측면’이라 하고, 후자(後者)의 것을 ‘행적인 측면’이라 한다. 물론, 도덕성의 이 두 가지 측면은 별개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보다는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교육의 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도덕성의 이 두 측면을 잘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곧 학생들이 보다 넓고 깊이가 있는 도덕적 인품을 형성해 나가고, 이와 일관되게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삶이 향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덕과 교육의 과제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도덕적 원리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라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많은 식의 도덕적 원리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러 개의 도덕적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에 그 원리들은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만약 모순된 도덕적 원리들이 한 인간의 도덕 생활을 지배한다면 그는 일관된 태도로 생활하기 어렵다. 내면화된 도덕적 원리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격의 개념에서 본다면, 도덕과 교육의 과

31) 교육부(1998),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지도서(3학년)」, pp.6-8

제는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도록 돕는 일, 즉 도덕적 원리들 간의 통합과 그에 일관된 생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도덕과 교육의 내용적 특성

제 6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에 따르면, 도덕과는 도덕적 원리나 규범의 합리성을 이해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도덕과 내용 선정의 취지에는 도덕과에서 다루는 내용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는 바, 그 주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나 사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혹은 개념의 의미, 개념들 간의 논리적 관계의 인식만으로 온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어떤 사태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이나 지식을 충분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사태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적절한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도덕과의 내용은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에서 다루는 사실적 지식도 아니고, 수학 등에서 다루는 논리적 지식이나 미술, 음악 등에서 다루는 심리적 내용도 아니다. 도덕과의 내용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요구되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다. 비록 도덕과에서 사실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 등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이고, 도덕과의 중심적인 내용은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 도덕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일상 생활'이란 학생들의 전 생활 영역 곧 개인으로서의 생활력과 가정·이웃·학교와 같은 근린(近隣)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보다 넓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생활 및 한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이 같은 일상 생활의 제 영역에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요구되는 규범들을 다룬다.

그런데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요구되는 이 같은 규범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범이다. 그러한 주된 규범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도덕·윤리적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컨대,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우리의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방향짓는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규범들이기 때문이다.

(3)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은 도덕적 논의 양식의 독자성과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대한 배려에 의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도덕적 논의 양식의 독자성으로부터 드러나는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자. 도덕과에 포함된 지식이나 원리나 규범들은 다른 교과와 관련된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교과를 특정짓는 것은 그 교과속에 어떤 요소, 어떤 지식들이 있느냐 보다는, 그것들이 어떤 방법론적 특성에 의해 획득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에 있는 때문이다.

각 교과는 그 자체의 특유한 탐구의 원리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교과들은 자연 현상과 인간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지식들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그러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적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과는 사고의 규칙과 형식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리적 사고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능 교과는 심미적 생활 경험을 체계화하고, 미적 표현과 감상의 원리를 담고 있다.

도덕과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논의 양식을 통해 도덕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도덕적인 문제에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적절한 절차와 논의 양식들을 발달시켜 왔다. 윤리학자들이 발달시켜온 규범적 가치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이나, 도덕 교육학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도덕적 문제 해결의 과정 등이 도덕적 논의 양식의 특성을 보여 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는 이 같은 독자적인 도덕적 논의 양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도덕적 문

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적절한 안목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와 관련된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자. 도덕과 교육의 실제 과정은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가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등학교 3~6학년의 도덕과 교육은 1~2학년의 바른 생활과 교육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학교 도덕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계열적 관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바른 생활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도덕적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생활 예절과 도덕 규범의 습관화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문제 사태 해결과 가치 판단 및 선택 능력을 길러 자율적 도덕성을 습득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학년 바른 생활과와 중학교 도덕과 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3~6학년 도덕과는 기본적인 규범의 습관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중핵적인 규범들의 내면화를 통해 점차 자율적 도덕성 형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지도의 초점을 둔다.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 주는 교과이다. 도덕과 교육은 교과 통합적 기능과 가치 통합적 기능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 구분된다. 즉 여러 교과 교육에서 획득한 지식과 능력 및 태도를 도덕과에서 통합하여 인격 형성에 연결시켜 주며, 가정과 학교 및 사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규범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把握)하여 하나의 통합적 가치(價値) 체계(體系)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리나 규범의 합리성을 이해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3) 도덕과의 교육목표

도덕과의 교육 목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과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며, 스스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 태도로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바른 생활과에서 배운 기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들이 스스로 도덕성 형성의 기초를 다지며 사회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4)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제6차교육과정)³²⁾

학년 영역	주요 지도 요소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개 인 생활	생명 존중 자주 성실 절제 실천 의지	· 동식물 보호 · 좋은일 실천 하기 · 정직한 태도 · 물건 아껴쓰기	· 건강한 생활 ·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 약속지키기 · 시간 아껴쓰기	· 인간생명의 귀중함 · 창의적인 태도 · 부지런한 생활 · 생활 계획과 반성	· 앞날에 대한 설계 · 최선을 다하기 ·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 신념과 실천
가 정 · 이웃 · 학교 생활	가정에서의 예절 학교에서의 예절 향토에 관용 경애	· 가족끼리 존중하기 · 학교생활에서의 반성 · 우정과 신의 · 고마움에 감사하기	· 친족간의 예절 · 학교에 대한 긍지 · 용서하는 마음 · 다른 사람의 처지 이해하기	· 전통 예절에서 본받을 점 · 이웃 간의 존중 · 친절과 양보 ·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 예절의 정신과 형식 · 고장 발전에 협력하기 · 사랑과 자비 · 사랑과 공경
사 회 생활	공공질서 협동 공익 공정 민주적 절차	· 공중도덕 지키기 · 봉사하기 · 여러 사람을 위하기 · 사람 차별 않기 ·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 · 경쟁과 협동 · 환경보호 · 정의감과 용기 · 회의시의 태도	· 법을 지키는 태도 · 시민 사회에서의 협동 · 경제 생활의 윤리 ·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 합리적인 문제 해결	· 법의 정신 이해 · 공동체 의식과 참여 · 사익과 공익간의 조화 · 정의로운 사회 건설 · 공정한 절차와 결과 존중
국가 · 민족 생활	국가에 민족에 통일 국제 우호 인류에	· 나라 사랑 · 조상의 뜻 이어 받기 · 분단의식과 통일의 필요성 · 외국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나라 발전에 협력하기 · 민족 문화 유산 아끼기 ·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	· 국가와 개인 · 해외 동포들의 조국애 · 평화 통일의 방법 · 국제 문화 교류	· 살기좋은 나라 · 민족의 긍지와 사명 · 통일을 위한 노력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32) 교육부(1998), 전계서, p.20-22

5) 도덕과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³³⁾

(1) 내용 선정

제6차 교육 과정의 내용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규범들을 중심으로 지도 요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우리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중에서 오늘의 사회 현실에 적절한 것들을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넷째, 초등 학교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관련되고 실천 가능한 규범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 내용 조직

도덕과 학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각 생활 영역별로 주요 지도 요소를 제시하였다.

둘째, 바른 생활과에서 중점 구성한 '개인 생활'과 '가정·이웃·학교 생활' 보다는 '사회 생활'과 '국가·민족 생활'을 강조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관심 영역을 감안하여 3,4학년에서는 '사회 생활', 5,6학년에서는 '사회 생활'과 '국가·민족 생활'을 강조하였다.

넷째, 도덕성 발달 수준에 근거한 학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 년	도덕성 발달 수준	학년별 내용
중학년 (3~4학년)	기본 덕목의 내면화	·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 · 규범에 근거한 생활 반성, 실천 의지
고학년 (5~6학년)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의 형성	· 규범 간의 관련성 이해 및 사태 적용 · 기초적인 도덕적 사고 능력 형성

33) 교육부(19930, 전게서, pp.58-78

(3) 보조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의 내용 및 성격

'생활의 길잡이'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 및 예절을 습관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따라서, 도덕 교과서의 지적 이해보다 행동 실천에 비중을 두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와 가정과의 대화 창구의 성격을 가진다.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 생활과의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로부터 3, 4학년을 거쳐서 5, 6학년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하였다.

도덕과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6 개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생각하여 토의하게 하여, 도덕적 안목과 민감성을 기러 주고 도덕과의 교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② 시사성이 강하거나 지역화할 수 있는 내용은 시대 상황이나 지역 사회에 적절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지도하되, 도덕과 교육 목표와 부합되도록 유의한다.

③ 도덕적 문제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은 자신의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여 하여 독창적 사고력을 촉진시킨다.

④ 학교 수업 이외에도 가정이나 사회 생활과 상호 연관지어 도덕적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며, 교사는 일상적인 언어나 생활 태도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⑤ 도덕과 수업은 문제 사태의 제시, 관련된 규범의 탐색,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 도덕적 판단의 연습, 실천 동기의 강화와 같은 일반적인 과정으로도 운영한다.

6) 도덕과 교육의 문제점

(1) 입시위주 교육과 도덕교육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우리의 학교교육에서는 도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도덕교육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계획되고 표방된 교육과정은 실현된 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초·중·고교 교육은 입시 교육에 압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가 학교 운영으로 시작이자 끝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상황은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 주지과목 위주의 교과 운영, 교사와 학생간의 부정적인 관계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입시교육의 폐해는 다른 어떤 측면의 교육보다도 도덕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이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중적이고 왜곡된 교육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학교에서는 자녀에게 전인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응답한다. 우리 교육현실은 이처럼 표방되고 있는 교육관과 충실히 부합되고 있지 않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올바른 도리를 깨우치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해주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시험점수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심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배우든 상관없이 시험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대다수의 우리 학부모들은 스스로 의식하는 않든간에 자녀의 교육에 있어 공적으로 표방하는 교육관과 실질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교육관 간에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학교와 교육당국은 표방된 이상적인 교육관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도구적 교육관을 추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대학 진학자를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희생시킨다든지, 입시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특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공동체를 위해 협동하고 봉사하는 학생들이 그에 알맞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단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각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곧 우리의 교육 실제에서 청소년들의 도덕 교육은 한낱 교육적 슬로건에 그치는 수가 많다.

(2) 교사의 역할

학교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생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자신의 역할상의 혼미를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들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두드러진 것 같다.

우리 나라 도덕교육의 실태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파악되는 것은 도덕과 담당교사들의 사기 저하 현상이다.(여기서 직접 다루는 대상은 중학교 도덕 교사들이지만, 고등학교 윤리교사들이나 초등학교 교사들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도덕과가 '기타 과목'으로 취급당하고 있고, 교사들 자신은 도덕교육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이며,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도덕교육'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한 마디로 도덕교과 담당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도덕교사가 도덕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가 분명치 못하고, 합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절과 회의를 겪고 있다고 파악된다. 일반교사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그것은 교사들의 교직관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 도덕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곧 도덕교육의 실제 담당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이 - 도덕윤리과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를 담당한 일반교사들을 포함하여 - 전반적으로 학교 도덕교육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도덕교육에서의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늘날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 속에서 학교 도덕교육은 도전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둘째, 학교 도덕교육이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학교 도덕교육은 이 같은 절박한 외적인 도전과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크게 못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 도덕교육은 실질적으로 입시위주의 지식 교육에 압도되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문화적인 전통에서 도덕 교육은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해 왔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를

대두된 것 중의 하나가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상황적인 요구로 인해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는 도덕교육을 강조할 필연성을 느껴왔다. 그리고 그 같은 사정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의 강조라는 슬로건으로 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우리의 학교에서 도덕교육은 실질적으로 덜 부각되고 교육적 노력이 덜 경주되는 영역으로 되어가고 있다. 곧 학교 도덕교육의 위상은 외적인 혹은 공식적인 표방의 수준에서 보여주는 강한 요구나 강조와는 달리 그 실제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도덕과의 경로 효친 교육

1) 도덕과 교과과정의 경로 효친교육

(1) 3학년 도덕과 교과과정의 경로 효친교육

① 1·2학기 17제재중 1학기 1제재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가족끼리 존중하기 (가정에서의 예절)
제재	3.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
주요지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끼리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 갖기 ②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 갖기 ③ 서로 아껴주고 존중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이 이룩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④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바라는 일을 알아보고 실천하기 ⑤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보고 개선하기
교수학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덕적 문제 사태의 인식 ② 관련된 규범 확인하기 ③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④ 도덕적 판단의 연습 ⑤ 실천동기 부여 ⑥ 경험발표 ⑥ 역할놀이 (시연, 토론과 평가)

(2) 4학년 도덕과 교과과정의 경로 효친교육

① 1·2학기 17제재중 1학기 1제재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친족간의 예절(가정에서의 예절)
제재	3. 친족간의 예절
주요지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목한 가족의 즐거움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② 친족간의 호칭과 촌수 알기 ③ 가족과 친족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족이나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알기 ④ 가족 신문 만들기
교육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1),(2) ② 문제 사태의 관련된 규범찾기 ③ 규범의미의 타당성 찾기 ④ 도덕적 판단의 연습 ⑤ 실천동기 부여

(3) 5학년 도덕과 교과과정의 경로 효친 교육

19제재중 1개 해당제재와 3개 유사제재

① 해당제재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지도요소	가정예절(조상들의 예절생활에서 본받을 점)
제재	3. 예절바른 생활
주요지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통예절의 좋은 점 본받기 ② 조상섬김의 전통예절에서 본받을 점 알아보기 ③ 각 가정의 예절생활 실천을 파악하고 본받기 ④ 실제 사례에서 예절바른 행동을 알고 실천하기 ⑤ 관례와 제례의 의미와 의식절차를 통해 전통예절의 훌륭한 점을 생각해 보기
교수학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② 관련된 규범 찾아보기 ③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④ 도덕적 판단의 연습 ⑤ 실천동기 부여 ⑥ 역할놀이 (상황설정, 준비, 참가자선정, 청중의 자세확인, 토론과 평가)

② 유사제재

영역	개인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생명존중(인간생명의 귀중함)
제재	1. 생명의 소중함
주요지도내용	① 인간생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② 경기중 위협에 처한 선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합을 포기할지 생각하기 ③ 신장 기증 이야기를 생각해보기 ④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쓴 사례 조사하기

③ 유사제재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경애(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
제재	4. 서로 돕는 마음
주요지도내용	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바른 태도 ②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알아보기 ③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내용을 알아보기 ④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기 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의 죄의식

④ 유사제재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향토애(이웃간에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제재	12. 정다운 이웃
주요지도내용	① 이웃간에 서로 도와야 할 필요성 알기 ② 현대사회의 이웃생활에서의 문제점 이해하기 ③ 이웃간에 서로 도와야 할 필요성 알기 ④ 이웃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⑤ 현대사회의 지난친 개인주적 경향과 전통사회의 협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고,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기

(4) 6학년 도덕과 교과과정의 경로 효친교육

19개 제재중 2제재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가정예절(예절의 정신과 형식)
제재	3. 올바른 예절생활
주요지도 내용	① 예절에서 정신의 중요성 알기 ② 예절에 있어서 실천의 중요성 알기 ③ 지나친 사양과 예절의 차이 바로 알기 ④ '사소절'을 통한 생활의 반성
교수학습방법	①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② 관련된 규범 찾아보기 ③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 ④ 역할놀이 ⑤ 실천 동기부여 ⑥ 도덕적 판단의 연습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교육과정 지도요소	경애(손아랫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
제재	13. 사랑하고 공경하며
주요지도내용	① 사랑과 공경의 뜻과 중요성 알기 ② 진정한 웃어른 공경에 대해 알아보기 ③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웃어른 공경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실천해 보기 ④ 여러상황속에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알아보기 ⑤ 진정한 공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교수학습방법	①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② 관련된 규범 찾아보기 ③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 ④ 도덕적 판단의 연습 ⑤ 실천동기 부여 ⑥ 갈등사태 제시 및 문제사태의 성격 알기 ⑦ 자기입장의 선택 ⑧ 양립된 입장의 결과 예상 ⑨ 입장 수정 및 대안 찾기

2) 문제점

대체로 경로 효친 교육의 문제점은 도덕과 교육 일반의 문제와 같다. 경로 효친 교육은 도덕과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경로 효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면에서 관련내용이 골고루 선정되고 계열성에 따라 조직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선정된 내용은 공경·봉사의 구체적인 덕목, 경로 효친의 마땅함과 바람직함, 경로 효친의 자세와 마음가짐, 현실적 실천방안, 경로 효친의 전통윤리적 특징과 가치 등이다. 이는 바르게 알아야 지식이다. 또 경로 효친하는 생활의 습관화, 경로 효친의 동기 강화와 실천의지의 고양, 구체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원리와 방법을 획득하는 연습을 통한 실천능력의 신장인데 이것은 실천의 문제이다. 교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생활의 길잡이'가 있기는 하나 내용이 진부하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통자료(원문 일부 사용)와 현대적 자료 또는 관련내용이 수록된 최근의 신문자료, 보고서 학생들의 체험기록, 영화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자료, 만화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방법면에서 보면 특히 가치·태도의 목표와 관련하여 도덕적 자아의 활성화, 심성 교육적 차원에서의 인격적 감화의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구체적 기법으로는 주로 주입에 의한 지식의 이해와 암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토론 학습, 조사학습, 역할놀이 학습 등 열린교육 방법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 타교과와의 연계 교육,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수업현장의 문제들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현실, 즉 학생들의 성적에의 부담, 특정교과에서의 전담, 교과외 시수 부족, 해당교과에서의 낮은 비중에서 오는 문제와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 방안 미흡, 학생과 사회의 현실적 상황과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방안의 결여 등 교과외의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IV. 도덕과 경로 효친교육의 활성화 방안

우리가 지금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해 오던 전통적(傳統的)인 도덕(道德)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통적인 도덕이란 곧 유교 중심의 도덕관을 말한다. 전통적인 도덕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한 서구 문명의 도입과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추진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풍족해 지고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전통적인 도덕의 퇴조(退潮)가 급격히 이루어 졌다.

윤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는 개인윤리 중심의 윤리관에서 사회윤리 중심의 도덕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는 그 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도덕적인 선을 추구할 것을 요청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개인이 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³⁴⁾

모든 인간관계를 도덕적인 인격의 관계로 보면서 기능적인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동양적이고 유교적인 특색이라 한다면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끼려 하는 기능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이 서양적인 전통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사회 자체가 급속도로 산업화, 정보화, 경제화 되어 가면서 모든 것이 서구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도덕이나 윤리관은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서구화 되기가 요원하다는 것과 특히, 우리의 관념이나 태도가 쉽사리 서구화될 수 없다는데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변화든 급격하고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요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가 전통적인 도덕관과 새로이 들어오는 외래적인 도덕관을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위기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의 전통적 미덕을 전승하기 위하여 경로 효

34)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1996), 「도덕윤리과교육」, 대학사, p.8

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경로 효친교육은 도덕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에서 주장되는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전달에 그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며 도덕적인 자아를 형성시키는 방향에서 지도되어야 하며, 효·경 교육은 바람직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인간 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방향의 바른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로 효친을 생활화하는 인격을 형성시켜야 한다.

아동들이 효·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도 실제의 마음은 다른 데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경로 효친에 대한 사상(思想)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행동을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나타내고 실천될 때 경로 효친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의 윤리적 방향이 학교의 교육 방향과 일치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경로 효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고 도덕적 행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여야 되는가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로 효친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며 그 정당성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을 떠나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生命)의 존엄성(尊嚴性)을 추구(追求)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상적(理想的)인 인간상(人間象)이나 도덕적 기본 원칙을 체계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기본적 원리나 가치관을 이해시키고 그러한 가치나 원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교육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³⁵⁾

효·경의 기본 예절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화되려면,

첫째,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야 하고,

둘째, 몸가짐이 단정해야 하며,

셋째, 말과 행동이 바르고 옳아야 한다.

35) 전라북도초등교육연구회(1995.), 「효경생활지도자료」, pp.18~19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효는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慈愛)롭고, 자식을 부모에게 효성(孝誠)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理解)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효는 인륜(人倫)의 덕목(德目)으로 자연발생적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웃어른에 대해 존경(尊敬)과 공경(恭敬)의 마음이 내면화 되어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표출(表出)되어 실천할 때 경로 효친의 생활화가 이루어진다.

경로(敬老) 효친(孝親) 교육(教育)은 효의 덕목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효의 정신과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하여 자발적인 행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효란 나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은혜(恩惠)를 고맙게 여기고 은혜에 보답하는 인간(人間)의 본성(本性)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부모의 인격 존중(尊重)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부모에 대한 인격 존중, 스승에 대한 인격 존중, 웃어른에 대한 공경(恭敬)하는 마음이 설 때 경로 효친생활의 생활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은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기본예절 교육이 선행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로 효친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현장(現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로 효친교육(敬老 孝親教育)이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효(孝)·경(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1.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체계화

1) 경로 효친 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경로 효친교육은 경로 효친에 대해 바르게 알기와 제대로 실천하기를 교수·학습한다. 바르게 아는 것은 ①공경, 봉사의 구체적인 덕목 ②경로효친의 마땅함과 바람

36) 정병진(1997), “경로효친 교육의 생활화 방안”, 「교육제주(98호)」, pp.43-44

직함 ③경로 효친의 자세와 마음가짐 ④현실적 실천방안 ⑤경로 효친의 전통윤리적 특징과 가치등에 대해서이다.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①경로 효친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고 ②경로 효친의 동기 강화와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의지를 고양하고 ③경로 효친을 실천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원리를 획득하는 지적 연습을 통한 실천능력의 신장 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실정에 맞게 선정·조직됨으로서 교수학습 된다.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고려할 점은 첫째, 학습자의 흥미, 관심, 지적·도덕적 발달정도, 둘째, 지식·가치·행동영역의 조화, 셋째, 신·구,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의 조화, 넷째, 규범과 적절한 실천사례와의 조화, 다섯째, 전체적 시간수, 교육환경과 여건 등 실현 가능성, 여섯째, 교수·학습의 목적과 형태 등이다,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전체적인 교육계획과 그에 따라 조직된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덕·윤리교과서는 대표적인 교재이나 그것은 다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로 효친교육만을 위해서도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교과서의 이외에는 논어, 효경, 소학, 내훈, 격몽요결, 사소절, 명심보감, 부모은중경과 같은 유고와 불교의 경전·수신서와 효행록, 삼강행실도, 삼국유사, 각종 지리지, 읍지와 같은 역사적 기록물 등 전통적 자료와 최근 신문의 관련 내용, 보고서, 학생들의 체험기록, 영화와 같은 영상 자료 등 현대적 자료들이 있다 교과서 이외의 자료들을 교수·학습활동에 바로 활용하는데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자료의 일부 또한 전체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할 때 역시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고려해야 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³⁷⁾

2) 경로 효친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경로 효친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그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인 도덕교육의 교수-학습방법과 유사하다. 경로 효친에 관한 지식, 덕목, 행동 양식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주입식 방법으로 암기하에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 도덕적 자아의 형성이나 문제 상황의 파악과 문제해결방안을 스스로 찾게 하는 그의 가치·태도 및 지적 기능은 탐구식 방법에 의해 스스로 체득하고 인격화하도록 한

37) 양방주(1997), 전게서, pp.14-15

다. 지도 방향을 크게 세가지 점에서 보면 첫째, 가치관 교육에 입각하여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효친을 생활화하는 인격을 형성시키며,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고 도덕적 행위가 생활화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즉 행위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내용으로서 기본적 원리, 도덕률, 원리가 적용된 구체적 사례 등을 위계있게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지도함으로써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길러주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심성교육적 차원에서 인격적 감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는 사제간의 기본적 신뢰감과 심층적인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하며 지도자의 모범, 마음을 다스림, 저절로 됨, 훈습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는 인간화교육 차원의 행동 지도이다. 이는 각종 행사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사회성 발달과 정서의 순화, 도덕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경로 효친교육은 실제로 교과 지도와 그밖의 교육활동의 지도로 이루어진다. 교과지도는 도덕·윤리교과와 그 밖의 관련교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관련교과에서의 지도는 상식적이며 특수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도덕·윤리교과와의 연계 내지는 일관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들이 일회성의 흥미거리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일방적인 훈화의 방법에 의한 주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주제를 추출하여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도덕·윤리교과에서의 지도는 학교에서의 경로효친교육의 핵심이다. 따라서 개념의 명료화, 관련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자율적 사고, 실천동기의 강화, 실질적 경로효친관 정립, 적용 가능한 덕목의 제시와 그 습관화 등을 적절한 기법으로 다루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한 내용 재구성을 통하여 학생의 수준과 시기에 적절한 내용이 연중 계속하여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치와 태도의 지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치와 태도의 지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치분석법과 가치명료화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기법으로는 강화에 의한 방법도 바람직하나 토론학습, 조사학습, 역할놀이 학습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화에 의한 학습으로 교과시간 이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훈화에 의한 지도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효과적이나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일방적 주입이어서는 안되며 경청후 사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토론학습은 경로 효친에 대한 갈등문제를 제시하여 토론을 통해 건설적 상황과 바람직한 대안을 조사하고 모색케 함으로써 그것에 관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또 비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한다. 조사학습은 경로 효친의 문제의 인식, 모범사례의 발굴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며, 역할놀이학습은 경로효친을 실제로 연습하게 하여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태도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고 긴장된 감정을 완화시키며,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지도를 통한 경로 효친교육은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요한 지도 법이다. 이를 통해 기본적 예절과 경로 효친의 덕목을 익히며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로 효친의 체험을 가능케 하여 경로 효친에 대한 바른 이해, 실천 동기의 강화, 실천 방법의 체득, 자아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특별활동의 지도이다. 이 방법에는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지도가 있다. 이의 지도에는 스스로 계획을 정하고 실천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상생활의 지도이다. 이 방법에는 훈화, 심신단련지도, 명상 훈련, 개인별 행동지도, 사회봉사활동지도 등이 있다. 셋째, 관련 행사의 개최와 지도이다. 이 방법에는 경로 효친에 관한 웅변, 글짓기, 독후감 쓰기, 그리기, 사례발표 등의 대화 지도와 일기(효행록)쓰기 지도, 가훈 전시회 지도, 각종 표창식을 통한 지도 등이 있다. 그 밖에 특이한 것으로는 경로 교실 운영이 있다. 이런 행사의 개최와 지도에는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행사의 본래 목적이 경로 효친학습과 생활화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경로 효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암기하고 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도덕적 행위에 대한 설교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경로 효친 교육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인간 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① 경로 효친의 실천에 힘쓴다.

이는 효(孝)와 불효(不孝), 경(敬)과 불경(不敬)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른다거나 구별할 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경로 효친의 사상과 태도를 생활 속에서 길러 나가야 한다.

② 경로효친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일깨운다

경로효친은 생활하는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고 조그마한 부주의도 없도록 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야지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안된다.

③ 고장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통하여 감화를 준다.

경로효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여 지도하고 조사하도록 하여 감화를 갖도록 한다.

④ 경로효친 사상의 심화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정상운영으로 다각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경로효친 교육도 교육 과정 운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관련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관련 단원을 통한 지도와 또한, 특별 활동, 생활 지도,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학부모회, 어머니 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노부모에 대한 봉양, 이웃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언행을 보여준 물론 자녀를 파잉 보호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³⁸⁾



2. 통합교육방안의 강구

초등학교 도덕교육은 교과통합적 기능과 가치통합적 기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도덕교과의 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 들었다. 교과통합적 기능면에서 도덕과교육은 학교에서 여러 학교교육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 능력, 태도를 통합하여 자신의 인격형성에 의미있게 연결해 주고, 가치통합적 면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다양한 가치와 규범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그 모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통합된 가치체계를 가진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첫째, 교과통합적 방안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경로 효친교육장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로 효친교육의 내용과 시간 수의 증가

38) 전계서, pp.15-17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구성원의 의식변화와 교육과정의 체계적 시행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구성원 특히 학교경영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도덕·윤리교과에서 경로 효친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규교과지도 외에 다양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holistic 교수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치통합적 방안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로 효친의 윤리는 가족윤리에서 출발하여 사회공동체의 윤리로 정착된 것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다른 도덕교육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익히고, 마음먹은 바를 실천해 옮기는 데는 전자 이외의 다른 요소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또 경로 효친교육의 일부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절로 훈습되듯이 교육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로 효친교육은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다양각색의 교재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들 중에는 그 내용이 특정 종교 사상에 치우치거나, 구시대의 것이어서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이상적인 것들이 많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 따라서 윤리학적교육학적 검토를 거치고 그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현장 연구들을 참고로 함 경로 효친의 내용과 성격·의의, 경로 효친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전국적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도 단위의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일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를 체계화하고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경로 효친교육은 교과교육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 현장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를 체계화하여 나간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³⁹⁾

3. 인성교육을 통한 경로 효친교육⁴⁰⁾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효(孝)다.

효(孝)는 인간의 삶의 덕목이자 개인의 가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바탕이요, 그릇이다.

부모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 형제간의 우애,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 친족의식, 예의와 친절, 화목한 삶과 이웃사랑의 인보정신, 훈훈한 인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는 경로 효친 사상에서 비롯한 전통적 가치로 인식하고 중요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가치도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는 핵가족 사회의 조류에 밀려 가치 상실의 위기를 맞는 현실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 적으로 풍요를 구가하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서양이 함께 물질문명의 정점에서 극도의 정신적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며 끝간데 없이 질주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 마치 현대문명의 위기적 상황이 극치에 달한 듯 하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바로 잡아 인류가 상실한 빛나는 정신적 가치를 되찾는 길은, 오직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오늘의 절실한 교육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孝)사상일 것이다."라고 우리의 전통 문화인 '사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⁴¹⁾

부모를 공경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는 일은 어려서부터 길러져야할 인간의 도리이며 기본윤리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어려서부터 길러지고 내면화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주적 생활 태도는 교육의 출발점이며 지향점이다.

학교생활에 있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39) 전개서, p.17

40) 동광초등학교(1999), 「효·경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p.7

41) 박동식(1996), "기본생활 예절 중심의 초등도덕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20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교과지도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근래 학교교육에서 기본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교육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행동 변화와 습관 형성에 어느 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의 기본생활 습관 지도는 너무도 당연한 우리 교육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다운 인성교육의 첫 단추는 부모를 섬기는 '효(孝)'교육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경로 효친 사상은 자라나는 2세들이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전통문화의 정신적 가치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바탕이자 인격 형성의 기본 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뚜렷한 교사의 신념과 확신이 서 있어야 한다. 효 관련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고 인격 형성의 기회를 다져 주어 어린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자 지향점을 재확인하였다.

학교가 아무리 양질의 교육적 에너지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생활습관 형성은 대부분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학교는 학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관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항상 열려있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과의 긴밀한 유대와 연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강화되어 나갈 때 효(孝) 교육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경로 효친의 정신이 내면화되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기본 생활 습관으로 다져지면 소망스런 전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4. 경로 효친의 가풍형식 교육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덕목은 종교적으로 경천, 철학적으로 의리, 정치적으로 위민, 경제적으로 근검 절약, 문화적으로 미풍양속이라 하고,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를 재정립 하는데에 필요한 윤리적 바탕을 경로 효친(敬老孝親)⁴²⁾이라 하였다.

42) 교육부(1985), 전거서, p.12

그런데 요즘 우리의 갑작스런 사회구조의 변화가 서구 윤리의 무비관적 수용으로 생활윤리에 대한 가치관마저 서구식을 본받아 가정에서의 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 사이의 관계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한 가정의 부모된 사람도 자식을 길러 결혼시킨 다음 자식과 같이 있으려 하지 않고 그 아들이나 며느리 또한 부모(父母)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부모(祖父母), 부모(父母), 자녀(子女)로 이어지는 전통적 혈연적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비혈연적 남과 남으로 구성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확산 되어가고 있다.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는 혈연관계로 묶여진 용광로와도 같은 영육도, 공과도, 선악도, 잘 나도, 못 나도, 귀천도 모두 포용하는 것으로 조부모, 부모, 자손의 삼위 일체의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불변적 천륜(天倫關係)관계로서 [우리관계]이다. 그래서 조부모는 공경(恭敬)받고 자손은 '내리사랑'을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핵가족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과 남으로 이루어진 부부 중심의 비혈연관계로서 가변적 이륜관계이다. 이는 1대1의 대등관계이므로 부부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시 남과 남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부관계는 일종의 계약관계요, 음과 양의 육체적 결합관계이다. 이와같이 부부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진정한 효교육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윤리의 기본으로 하는 서구사회에는 '孝'란 용어도 없다. 'filial piety'란 말은 동양의 효를 번역한 말이라⁴³⁾ 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대가족제도의 전통에서 핵가족제도(核家族制度)로 변화됨에 있어 핵가족(核家族)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부상호간은 물론 그 자녀들 사이에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힘을 합하여 가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독립성을 존중하고 평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과 부모,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전통을 이어 노인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사를 돌보며 손자들을 돌보게 하는 전통(傳統)의 좋은 점을 계승하면서 또 노인들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젊은 시절에 노후생활(老後生活)을 준비하는 핵가족의 가족윤리(家族倫理)가 정립(定立)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43) 안창범(1986), 전계서, p 28

44) 東京守(1985), “核家族의 特徵과 倫理”, 「경로효친의 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가정(家庭)은 아동의 인간성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環境)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작용의 양식, 자녀 통제 양식이 아동의 성격 형성에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가정에서는 이런 측면의 교육력(教育力)을 증대시키는 의도적인 조력이 소홀하고, 요즘 젊은 학부모 또한 최소한의 전통적(傳統的) 자녀 양육 방식을 익힐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현대적(現代的) 양육(養育) 방식(方式)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⁴⁵⁾고 하였다.

가풍(家風)이란 가정의 문화풍토로 자녀의 성격은 가풍(家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전통적인 우리 나라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에서는 가정(家庭)마다 가풍(家風)이 있어 자녀의 사회화에 도움을 주었으나 핵가족(核家族) 가정(家庭)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풍은 퇴색하고 없다.

가정(家庭)에서 자녀의 행동(行動)에 있어 지나친 관여(關與)를 삼가하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행동의 기준은 자녀 스스로가 정하는 풍토(風土)를 조성(造成)하여 가정이 인격교육(人格教育)의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성격적 기틀이 만6세 이전에 거의 완성되고 만8세 이전에 인간지능의 80%가 발달(發達)된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가정교육(家庭教育)이 학교교육(學校教育)보다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아주 어릴때일수록 효과적이라 하고 있다. 인간(人間)의 양심(良心)과 도덕의식(道德意識)은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때 어떻게 칭찬하며 벌 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모방(模倣)하고 동일시(同一視)하도록 하는냐에 달렸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 외에도 부모가 만드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창의성(創意性) 발달(發達)까지 좌우된다⁴⁶⁾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로 효친(敬老孝親)의 가풍(家風) 형성(形成)을 위한 교육은 핵가족 가정에서의 부모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경로 효친(敬老孝親)이 되도록 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깊게 맺도록 하고, 자녀들 앞에서 모범(模範)을 보여 인격형성(人格形成)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45) 정원식의외,(1984), 「아동심리와 가정교육」 서울: 한국방송공사 p 185

46) 현대사회 연구소(편),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 (상), p.409

5. 열린교육을 통한 경로 효친 교육

1) 열린교육과 경로 효친 교육

오늘날 정보의 홍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는 기존의 가치 질서를 흔들면서 인간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며 이로 인한 가치 판단이나 도덕 생활의 변화를 부추겨 인간의 정서와 존엄성의 대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아직은 외국의 경우보다는 낫지만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복되는 사회 병리 현상과 특히 청소년 문제는 참으로 위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온 국민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학교 교육과 경로 효친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 제시가 어렵고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열린교육을 통한 경로 효친교육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탐색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교육은 인간을 바람직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생활화 하도록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활동도 포함이 되겠으나 이보다는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열린교육은 이런 입장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과거의 주입식 입시 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 참으로 경로 효친교육을 하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로 효친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지니고 있는 가치와 사고의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경로 효친 수업을 과거의 교육 모습 즉 강의식 일제 수업에서 벗어나 바로 이 학생의 사고와 판단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사고 체계의 합리적인 발달을 돕고 나아가서 도덕적 사태에서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가치화를 위

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일반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는 과정을 열어 주어 스스로 경로 효친 교육을 해 가도록 해야 한다.⁴⁷⁾

2) 열린교육에서의 경로 효친 교육의 방향

열린 수업의 특징을 살린 좋은 경로 효친 수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로 효친 교육과 경로 효친 교육에서 지향하는 근본과 최근의 열린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경로 효친 열린 수업에서 가장 큰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은 경로 효친 교육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업의 과정 즉 교수 - 학습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경로 효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하도록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과 경로 효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며 스스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 태도의 습관화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경로 효친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곧 열린교육을 통한 경로 효친 교육이 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취지 하에서 학생의 생활 중심 경로 효친 교육과 즉 생활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을 실천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덕과 교과 교육 시간이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교과로서의 도덕교육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전 생활에 걸쳐 종일 지도의 차원으로 오히려 확대 지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경로 효친에 관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를 하여야 하며 교사가 경로 효친에 관한 열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정교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47) 제주도교육청(1999), 「창의적인 열린교육 활동」, pp.59-60

둘째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을 내면화시키면서 점차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시키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중핵적인 경로 효친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소 생활속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넷째 교사는 가르칠 거리를 충분히 마련하고 학생은 배울 거리가 충분히 제공되어 다른 분야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자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즉 도덕적 사고나 도덕적 판단의 결과를 암시적으로 제시하며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섯째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례를 소재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반성해 보게 하고 스스로 경로 효친 행동을 하려는 의욕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덕적 신념과 행동화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경로 효친 지도 내용을 계기 행사 및 학교의 행사 마을의 경로잔치 행사 등에 시의 적절하게 구성하여 경로 효친교육이 실생활과 밀접함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여 생활을 개선하는 실사구시의 경로 효친교육이 되도록 한다.

일곱째 도덕과 교육을 통하여 경로 효친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 경로 효친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준과 범위를 고려한다.

여덟째 학생의 도덕적 갈등을 유도하는 발문과 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어 있고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대응하는 지도 기법과 그들의 심성을 읽고 조절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해 두어야 한다.

아홉째 무엇보다도 경로 효친 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경로 효친 교육 분위기 연출이 지도의 관건이다.

열째 단순한 교과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태도 개선 교육이 되도록 시간, 공간을 개방한다.⁴⁸⁾

3)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한 경로 효친 교육

현장 체험학습이란 일상적인 학습 공간인 교실을 떠나 자연이나 사회적인 사실과

48) 전계서, pp.60-65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답사·견학·조사·노작·관찰 등 실제적인 활동을 통한 학습방법이다. 그러므로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의 제공은 물론 바람직한 생활 태도 형성과 건전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현장학습의 교육적 의의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폭넓은 학습 경험을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를 수 있다. 생활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게 한다.

둘째 다양한 학습 활동은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학습의 공간을 확대해 줌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느끼지만 자기 보다 더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 직접·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자신의 작은 노력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셋째 의도적으로 자연환경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넓은 자연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그를 통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활동 내용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체력 및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건전한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이러한 경험 활동은 자신감 성취감 상대방에 대한 존경 공동체 의식 끈기 인내 봉사 정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경로 효친교육의 활성화는 더욱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민속 박물관 및 문화 유적지 답사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민족의 얼과 조상들의 생활속에서 경로 효친 생활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본받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유적지인 향교나 민속 예절관에 입소하여 경로 효친교육을 배우는 방법도 좋겠다. 현장 체험 학습에서의 경로 효친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수준과 범위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결정하며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지도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로 효친교육의 현장 체험학습은 단시간에 효과를 올리려고 하지말고 오랜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해보고 습득하여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경로 효친교육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지도할(학습할) 내용을 명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우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기대했던 성과를 올릴 수 있다.⁴⁹⁾



49) 제주도제주시교육청(1999), 「즐거운 현장체험 학습」, pp 3-4

V.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도덕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전통윤리의 하나인 경로 효친 사상을 재정리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사회에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 일반은 물론 도덕과 교육 그리고 그 일부로서 경로 효친의 교육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로 효친 사상의 사회적 확산으로 생활 급변화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본적인 생활 예절의 습관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로 효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문서적과 관련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경로 효친 사상을 소개하고, 그 교육에 대한 의의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해설서, 교사용지도서를 중심으로 현행 제6차교육과정 초등학교 도덕과를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경로 효친 교육에 대해 분석·정리하여 실패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논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도덕과의 경로 효친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경로 효친이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나아가 사회의 웃어른을 자신의 부모처럼 잘 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경로 효친의 바탕은 효(孝)사상이다. 유학사상에 있어서 효는 도덕적 질서의 근본이다. 즉 모든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기초이며 도덕적 질서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효는 덕행의 근본이자 교화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효는 타고난 것으로서 모든 인간으로써의 바탕이면서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로 효친 교육은 인간의 근본원리에 충실한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경로 효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규범과 생활 예절을 익히며, 도덕적 판단능력을 길러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도덕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 효친의 기본 예절을 익히고 경로 효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며 경로 효친의 실천의지와 능력을 함양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격화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경로 효친의 교육이 원리는 경로 효친 덕목의 습관화, 경로 효친하는 태도와 감정 형성, 경로 효친의 가치 내면화이다.

초등학교에서의 경로 효친 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과교육으로서는 도덕과의 한 부분으로 행해지고 있다. 3학년 17제재 중 1제재, 4학년 17제재 중 1제재, 5학년 19제재 중 2제재, 6학년 19제재 중 2제재의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지도요소는 가족끼리 존중하기(가정에서의 예절), 친족간의 예절, 조상들의 예절생활에서 본받을점, 인간생명의 귀중함,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 이웃간에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예절의 정신과 형식, 손아래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 등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대개 가치갈등 분석모형, 가치분석 모형, 고찰모형, 사회적 행위 모형, 가치명료화 모형에 입각하여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관련된 규범 찾아보기,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 도덕적 판단이 연습, 실천동기의 부여와 같은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법으로는 토의학습과 역할놀이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와 체계화한다. 경로 효친 교육은 경로 효친에 대해 바르게 알기와 제대로 실천하기를 교수·학습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 이외의 고전자료와 현대적 자료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경로 효친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그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인 도덕교육의 교수-학습방법과 유사하다. 경로 효친에 관한 지식, 덕목, 행동 양식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주입식 방법으로 암기하에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 도덕적 자아의 형성이나 문제 상황의 파악과 문제해결방안을 스스로 찾게 하는 그의 가치·태도 및 지적 기능은 탐구식 방법에 의해 스스로 체득하고 인격화하도록 한다. 가치와 태도의 지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치와 태도의 지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치분석법과 가치명료화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기법으로는 강화에 의한 방법도 바람직하나 토론학습, 조사학습, 역할놀이 학습 등을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통합교육 방안을 강구한다. 도덕과교육은 학교에서 여러 학교교육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 능력, 태도를 통합하여 자신의 인격형성에 의미있게 연결해 주고, 가치통합적 면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다양한 가치와 규범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그 모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통합된 가치체계를 가진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경로 효친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활용해야 한다.

셋째는 인성교육적 방법을 활용한다.

넷째는 가풍형식의 교육을 실시한다. 경로 효친(敬老孝親)의 가풍(家風) 형성(形成)을 위한 교육은 핵가족 가정에서의 부모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경로 효친(敬老孝親)이 되도록 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깊게 맺도록 하고, 자녀들 앞에서 모범(模範)을 보여 인격형성(人格形成)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열린 교육방법을 도입한다. 열린 교육의 일반적 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하는데 그 중 특히 현장체험 학습은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현장 체험학습이란 일상적인 학습 공간인 교실을 떠나 자연이나 사회적인 사실과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답사·견학·조사·노작·관찰 등 실제적인 활동을 통한 학습방법이다. 그러므로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의 제공은 물론 바람직한 생활 태도 형성과 건전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산업사회로써 핵가족화 되었다고 하지만 또한 사회가 복잡하였지만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문화를 갖고 있다.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의 전통은 가풍이며 학교의 전통과 지역사회의 전통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전통을 가지며 전통에 이어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학교가 있는 곳은 학교 문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문화 국가는 민족 문화가 있다 우리들이 오래 동안 갖고 있는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도 그에 속한다. 경로 효친은 우리 민족의 갖고 있는 최대의 미풍양속이며 문화와 전통이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경로 효친 문화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로 효친 실천이 어떠한가 깊이 반성하여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힘을 합쳐 전통문화인 전통 윤리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로 효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단행본 >

- 강우철 외(1981), 「도덕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강재륜(1991),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대왕사.
- 교육부, (1994),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85), 「경로 효친 교육」,
- (1998),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Ⅲ)」
- (1998), “교사용 지도서”, 「도덕 : 3,4,5,6학년용」
- (2000), “아동용 교과서”, 「도덕 : 3,4,5,6학년용」, 교육부.
- 김대환(1977),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 「국민윤리연구 제6호」
- 김윤환(1983), 「기본생활 습관지도 자료집」,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 김익수(1979), 「한국의 효사상」, 서문당.
- 김혁제(1992), 「소학」, 서울 : 명문당.
- 나병술(1983), 「교육심리학」, 교육연구사.
- 대구직할시 교육청(1986), 「기본예절지도자료」, 장학자료 14호, 대구 : 영문사
- 동광초등학교(1999), 「효·경 체험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 문교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생활 3,4,5,6학년」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편(1985), 「경로 효친의 교육」, 농원문화사.
- 안창범(1986), 「경로 효친과 학교교육」, 주임강좌 제6권 제6호.
- 윤병석(1977), “학교교육을 통한 충과 효”, 「교육평론」, 서울 교육평론사
- 전라북도초등교육연구회(1995), “효경생활지도자료”.
- 정원식의(1984), 「아동심리와 가정교육」 서울 한국방송공사
- 제주도교육청(1994), 「제6차 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제주도 교육청.
- (1997), 「교육제주 (98호)」
- (1999), 「창의적인 열린교육」
- 제주제일중학교,(1996), 「인성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 제주도제주시교육청(1999),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
- 차경수(1985), 「해가족의 특징과 윤리」. 서울교육청, 경로 효친의 교육(서울교육청 교원 연수도서 12권,).
- 한국국민윤리학회편(1994), 「국민윤리학개론」, 형설출판사.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1996), 「도덕윤리과교육」, 대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 현대사회연구소(편)(1982),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 (상)」

< 논문집 >

- 강점중(1994), “초등학교학생들의 효 윤리관에 관한 조사 비교 연구”, 석사 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인호(1999),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 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중욱(1997), “청소년기의 ‘효’ 윤리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희(1987), “초등학교 효교육을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택(1999), “초등학교 경로 효친 교육의 holistic 교수-학습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준호(1986), “효 사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동식(1996), “기본 생활예절 중심의 초등도덕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변규용(1993),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효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준섭(1986), “효 윤리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용 (1997), “초등학교 경로 효친 교육의 내면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용식(1993),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효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최순호(1996), “초등학교 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대학 학생생활연구소(1995), 「학생생활연구 (제21집)」, “효 정신의 내면화를 위한 지도”,



<Summary>

**An Activation Way of Education
for the Old and Filial Piety of Primary School**

Yang, Hun-jong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u

One way to solve the moral problems which our society faces these days is to live with the old and filial piety which is a rule to recover the humanity and traditional good morals and manners. The old and filial piety is to respect parents and old people spiritually and materially. This is very necessary to the yout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ward the activation of education for the old and filial piety which is performed to primary school students who begin to learn systematically the education on the formation of a sense of values and acquisition of basic living mann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ntents, it is desirable to select and systematize the contents considering the learner, possibility of realiza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existing contents and make a reference book.

Second, in the practical way, the formation of moral ego, moral influence and habituation of behavior should be done. Specifically, it is desirable to use discussion learning, research learning and role play. In my opinion,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create the atmosphere of school and connect home with societ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